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 이야기

장학월보

Vol 272 **2015 / 10**



토란잎 우산

글 경남교육연수원 주무관 임성구

먼지 폴폴 날리며 빨간 버스 지나간다
차 허리 탁탁 치며 안내양이 오라~이
한 줄기 흙 비린내 날린 소나기도 오라~이

닫힌 문이 열리자 쏟아지는 정든 얼굴들
파란 철재 교문 위로 넘어오는 종소리에
황톳빛 발걸음들이 다급하게 달려갔던

단별 운동화도 그 땐 마냥 좋았었지
버드나무 옛 정류장 만삭의 배 내밀듯이
토란잎 꺾어 든 아이들 충충히 몰려왔다



Contents



04 권두언

말 / 교육감

06 생생현장

08 장학칼럼

모두가 행복한 학교 / 김정재

09 특별기획 / 행복학교 운영

학교 혁신과 행복학교의 나아갈 길 / 심성보
행복학교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 / 이학래
꿈, 감성, 이야기가 있는 수곡 행복 교육 / 김우영

20 교육정보 / 경남교육! 이것이 궁금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부서(기관)별 10월 주요 행사 안내

28 배움중심수업

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수업 / 강은미

30 배움이 즐거운 학교

디지털교과서 활용으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작지만 강한 학교 / 정복자

32 동아리 탐방

협동학습으로 풀어나가는 창의·인성 교사수업연구회 / 김영진

34 이달의 교사

창의력으로 꿈을 키우는 아이들 / 김민철

36 책 읽는 교사의 서재

교사 배초록의 서재는 삶을 가꾸는 숲이다. / 배초록

38 삶의 향기

책과 함께하는 문화 공감 / 박소연

39 지상갤러리

사라질 것들 / 강경근



표지사진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들"
정호찬(김해 삼방초등학교 교사)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11월호 모집 기간 : 2015년 10월 19일까지
- 모집내용 : 배움이 즐거운 학교, 배움 중심 수업, 삶의 향기(시, 수필, 독후감 등), 등 분량 : A4 1~2매 내외
- 원고보내는 곳 :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 ※ 내려받기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초등교육과 ▶ 부서사업 ▶ 보고서 / 간행물

2015년 10월 1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총괄 | 초등교육과 과장 최훈 기획 |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오영선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김대현

편집위원 | 박영선, 박선정, 배인숙, 김요섭, 정호찬 인쇄 | 문성인쇄사 (055)282-9922



말

사물의 이치를 물리라 하고, 세상의 일에도 이치는 있어 그것을 사리라 하며,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도 가닥을 잡을 수 있으니 그것을 일러 심리라 합니다. 우리가 삶을 꾸려 가고 있는 말도 마찬가지로여서 그것은 또 논리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성은 합리를 추구하며 모순이 가장 적은 상태를 지향해 갑니다. 그것이 축적된 것이 바로 지식이자 문화입니다.

그런데 물리 현상도 언어로 표현하고, 심리 상태도 언어로 그려 냅니다. 그러므로 그 설명의 언어는 마땅히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허술한 논리가 통용되고 있는 일상사도 논리에 바탕을 두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실 사물의 세계든 마음의 세계든 완벽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는 연속되어 있고, 언어는 그것을 잘라 분절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계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마음을 직접 전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心心相印(心心相印) 같은 말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깊은 진리는 말로 다 드러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묘한 감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의 한계는, ‘낮’과 ‘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낮’은 ‘밤’을 전제로 인식하며, ‘밤’은 또 ‘낮’을 상정해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상대적 관계로 양자를 인식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어로 사유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언어 저편의 진리를 탐구해 가는 도정은 그래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은 철학적 사유의 문제이지 일상사까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어가 본디 모순된 것이라 하여 생활 속에서 아무렇게나 말해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사에는 선후가 있고 인과가 있습니다. 땅이 젖은 것을 보고는 밤새 비가 내렸음을 압니다. 비 내리는 것을 보지 않았지만 이치를 바탕으로 정황을 생각해 냅니다. 주고받는 대화에서도

화자와 청자는 그 논리를 전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논리에 어긋난 주장이 억지입니다. 억지는 지성의 세계에서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러보면 억지가 통하는 곳이 많아 보입니다. 참 딱한 세상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근원은 논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비논리를 배격하는 풍토가 마련된 세상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핀다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란 힘을 나누어야 한다는 좁은 견해를 넘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드넓은 신념 체계라 여깁니다. 일그러진 것은 펴야 하고, 어긋난 것은 맞추어야 하며, 비뚤어진 것은 바로여야 합니다. 욕망으로 빼앗는 일을 그치고 원력으로 나누어 주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집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혜의 자유를 찾아가야 합니다. 폭력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논리가 그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서 처음 말을 배웁니다. 엄마의 말은 어른들의 말입니다. 아이들의 말씨에는 세상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뜻을 새길 틈도 없이 역정부터 내고, 제 생각에만 사로잡혀 고집을 부립니다. 욕설도 거리낌 없이 쏟아냅니다. 이런 것이 다 듣는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에서 말미암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심정에서 기인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적 시민성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자리를 잡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본질에 있어서는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회가 바뀌어야 아이들의 말씨가 순화되겠지만, 아이들의 말씨가 바뀌면 미래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도 분명합니다. 그 시작은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데서 비롯될 것입니다. 그래야 대화와 토론의 끝이 교감에 이를 것입니다. 그 교감이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사회를 민주적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한편, 논리를 갖추려는 노력이 공부와 사유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학문은 논리를 구축하는 일이며, 논리를 존중하는 것이 지성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말이 지니는 의미는 논리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동화, 창조성, 미학과 같은 높은 단계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말을 한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는 말을 걸어 주는 것만으로 치유가 됩니다. 다감한 어조의 말은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멋진 비유는 기쁨을 주고, 기발한 은유는 섬광처럼 번뜩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잘 어우러진 말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와 같은 감동을 줍니다. 품격 있는 말은 상대의 인격도 높여 줍니다. 말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논리입니다. 논리는 서로 공유하는 약속입니다. 그 편안함 위에 말의 축복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여러분의 교실에서 들려오는 말씨는 어떠한가요?

한글날을 앞두고

교육감 박 중 훈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생생현장

1



2



4

- 1 경남교육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한 통학버스 조성 협약
- 2 경남교육청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협약 체결
- 3 전국영농학생(FFK) 전진대회 경남선수단 격려
- 4 군부대 방문 특강

- 5 청렴 연수 및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실천 결의 대회(진주교육지원청)
- 6 2015. 학교장 및 학교폭력책임자 연수(사천교육지원청)
- 7 무한상상의 날개! '양산수학체험센터' 개관(양산교육지원청)
- 8 제2회 초·중학생 교육장기 육상대회 개최(거창교육지원청)
- 9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방향 모색(창원교육지원청)
- 10 인공암벽을 등반하는 여고생들의 수련활동(낙동강학생교육원)
- 11 꿈이 자라는 찾아가는 체험활동(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정재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정도를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한 말이다.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과 역량에 맞추어 현재를 꾸려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기에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보편화된 관점으로 다른 문화권의 삶의 양식에 대해 판단내리는 것은 성급한 사유의 결과가 되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인용한 문구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이란 생각이 든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많은 지식의 양 중에서 쓸모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조합하며 판단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배움’의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로의 첫걸음을 시작한 우리는 각 단위 학교마다의 방식으로 행복학교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통을 통한 진정한 ‘배움’의 과정으로 교육을 바라보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추구하여 성공적인 행복학교로 나아가려면 우선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점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 아이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선이 변해야 할 것이다, 내 아이는 남과 달라야 하고, 남보다 좀 더 빨리 지식과 기량을 습득해서 앞서가야 한다는 부모의 욕심이 다스려져야 한다. 공부를 지식의 양으로 판단할 수 없듯이 누구보다 잘하고 더 빨리 성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아이마다 다른 성장과정에서 성취결과 차이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뿐이고, 다만 빠르고 느린 속도의 차이일 뿐인 것이다. 부모의 개인적 욕구에 이끌려 경쟁모드로 내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을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이다.

둘째, 학교 운영의 기본 틀이 되는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들의 가치와 철학을 모아 자율적으로 학생자치를 추진하고, 총괄적 일제고사를 대신하여 수시평가(수행평가 및 서술·논술형 평가) 등을 다양하게 도입해 운용할 수 있게 조력해야 한다. 행복학교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모두가 함께 주인이 되어 협의하고 결정하는 학교로 바뀌는 기대를 갖고 시작한 도전이다. 참된 학업성취로 배움과 나눔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성장과 보람을 느끼고, 신뢰와 만족이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접적인 교육현장인 학교의 변화이다. 학생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마무리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학교의 교육관과 경영철학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것이니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교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매일 학생들을 만나고 교육내용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기에 준비된 역량 있는 교사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향유하며 실천할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된 가치로 훈육하고 학생의 개성과 흥미, 관심을 존중하며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정, 근시안적인 사고를 벗어던지고 세계 속의 인재로 확대할 수 있는 교육체제,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관을 가진 교사와 학교,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배움의 현장은 항상 즐겁고 좋은 수업이 될 것이며 그 곳은 진정 ‘행복’한 곳일 것이다.

특별기획

행복학교 운영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사가 성장하는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를 위한 노력!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의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 단위학교의 사례에 대해 살펴봅니다.





학교 혁신과 행복학교의 나아갈 길

글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심성보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학년이 높아감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삶에 있어 행복의 중요성,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교육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남교육청의 행복학교 추진 방향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행복과 교육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힘을 길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행감을 감내하는 힘도 길러야 한다. 니일은 행복한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의 조건으로서 ‘자치(self-government)’를 강조하였다. 니일이 세운 서머힐 학교의 자치는 아동들로 하여금 민주적 태도와 성향의 발달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머힐 자치의 궁극적 의도는 아동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민주적 태도와 성향을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킴으로써 바람직한 민주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다. 행복한 학생은 사랑이 넘치는 자치 공동체 생활 분위기를 체험하며 살고, 반면 불행한 학생은 긴장을 조성하는 학교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식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적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콜버그의 ‘정의로운 공동체(just community)’ 모델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안학교를 세워 선풍을 일으킨 바 있는 『간디학교』의 교육철학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두고 있다. 아이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행복한 학교의 교육목표에 정답은 없다. 간디학교 교장 양희규 선생은 현실 사회는 구조화된 악이 워낙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힘으로는 구조악을 변화시켜 행복에 이르는 어렵다고 역설한다. 사회구조적 악을 만든 것도 사람이고, 그 구조적 악을 뛰어넘는 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구조악을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교육운동은 서구의 혁신학교 운동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많은 혁신교육사상가들은 모두 주입식 교육과 훈련의 장이라고 여겨지던 학교의 권위주의에 대항하였고, 대화와 응답을 통한 전인적 학습을 중시하였다. 혁신학교에 영향을 준 서구 진보교육 사상가로는 근대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아동의 발견’을 처음 제기한 루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듀이의 실천과 행위를 통한 교육, 경험의 재구성, 아동의 흥미와 관심, 연합적 삶, 학교를 사회의 축소판으로 민주주의 실험장이고 맹아적 공동체로서의 학교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피아제의 발달 이론이 인간

사고발달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세계와 대면한 개인에 집중한다고 비판한 비고츠키가 언어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내재된 집단적 삶의 형성을 반영한다고 보았던 생각에서 혁신학교 철학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배우게 된다. 일과 직업, 협동, 토론, 자유로운 표현, 탐구중심학습, 자연적인 방법, 흥미 중심, 학급회의 등을 강조한 프레네, 그리고 어린이는 이미 하나의 인간이라고 주창하며 어린이에 대한 무한한 존중을 보여준 코르차, 돌봄과 함께 행복을 위한 교육을 주창한 나딩스는 혁신학교 운동에 많은 상상력을 갖게 한다. 덴마크의 에프트스콜레(Efterskole)처럼 학교는 사랑, 애정, 배려를 경험하게 하는 친밀한 공동체, 자율적 행위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관심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를 통해 연대의 경험을 하게 하는 사회적 공동체를 접하게 하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는 모름지기 인생을 경험해보는 장소이고 인격, 공동체,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융합된 실험을 하는 장소이어야 한다. 이 교육적 실험은 성인이 되는 인격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공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혁신학교(innovative/reformative school) 운동의 뿌리는 학교민주화 운동과 대안학교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혁신학교 운동은 지역주민과 학부모, 교사들간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혁신학교 운동은 우리 교육을 옥죄어 왔던 대학입시 경쟁교육을 넘어서고자 하는 교육개혁 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의 공교육이 입시와 사교육에 위협을 받으며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잃어가자 그 돌파구를 혁신학교에서 찾은 것이다. 한국의 혁신학교는 한국의 공교육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개혁적 교육 모델을 통해 해결해 가려는 교육운동이자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공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모델학교인 혁신학교는 제도권 안의 학교로서 이때의 ‘혁신’은 공교육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며, 공교육 체제 안에서 혁신을 모색하는 전향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 난관에 처해 있는 현행 학교체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적인 대안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행복학교의 이상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혁신학교 운동은 대안적 사회 모델의 구성이라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에 상응하는 대안적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구체적으로 ‘행복학교’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하고 있기에 혁신학교라는 보편성을 중심에 두면서 행복학교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특색이 있는 학교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획일화된 혁신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경남교육청만의 진정성을 살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칭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무늬만 혁신학교’가 되지 않기 위해 혁신교육의 제도화(실천가를 포함한)로 인한 관료주의—과거의 ‘열린 교육’처럼—의 재등장을 막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자발성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교사들이 ‘학교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없다. 교사는 학교운영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운영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민주적 참여야말로 교육현장의 요구와 열망이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학교운영의 참여의 성공 여부는 주체들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기에 그들의 역량의 강화를 위해 지도가 향상되어야 한다. 동시에 학부모 의식의 혁신 없이는 학교의 변화가 쉽지 않다.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변하지 않으면 학교혁신으로 가는 데 있어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학교를 교육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민주적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교를 공론의 장으로 만드는 일은 학교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론의 장은 교사의 전문적 공동체의 활성화와 함께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수업의 상호작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민주주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이 구성원들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학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잘못된 관행, 제도와 교육방법을 모두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혁신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이들을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주체’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학습의 대상이자 시민으로 성장할 주체이므로 주체로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학생회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이 학교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시민성은 추상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려면 민주적 시민성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이 일처리에 있어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정하여 학교 참여의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혁신학교가 사회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는 실험적 대안이 되려면 고착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균열을 내야 한다. 그래야 산업기술혁명과 지식정보혁명에 이어 가치혁명이 가능하다. 교육의 잠재적 힘으로서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혁명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기술과 정보 그리고 지식에 대한 인문적, 생태적 상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교실혁명과 학교혁명은 지식혁명과 가치혁명 그리고 인간혁명이 일어날 때 가능하다. 또한 지식과 가치의 혁명이 가능하려면 먼저 교사의 자기혁명이 필수적이다. 교사의 혁명은 학생들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여섯째, 단위 학교 차원의 혁신적 논의는 대학입시라는 막강한 벽을 놓고 생각하면 무기력한 공론처럼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학벌체제가 존재하는 한, 중·고교 체제의 논의는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다. 한국 혁신학교가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 교육열, 입시, 대학 서열화의 흐름은 혁신학교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입시위주 교육의 현실에서 고교

단계에서 혁신학교의 교육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고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틈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배와 저항 사이에는 균열이 있기 마련이다. 위로부터의 저항도 가능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저항도 가능한 것이다. 만약 공교육 전체가 혁신학교가 되면 역으로 대학입시가 저절로 중·고교의 요구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향적 변화를 도래될 수도 있다.

일곱째, ‘아이 하나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가치 있는 교육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교육의 개혁은 학교교육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변화시켜야 한다. 혁신학교의 흐름을 이어 받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마을교육공동체이다.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역할을 분담하고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실천적 방법으로 학습시킴으로써 학습역량과 정의적 발달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마을이 학교 밖 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매개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행복한 학교와 교육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혁신학교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교육의 심리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을 변증적으로 융합해야 한다. 혁신적 사회와 함께 혁신적 인간/아동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인간 없는 사회나 사회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아동의 사회화와 사회의 인간화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혁신적 사회를 위한 사회학(사회 중심/비판적 교육학)과 혁신적 인간 형성을 위한 심리학(아동 중심/발달교육학)을 상호 융합하여야 한다. 아동중심주의들이 강조하는 흥미와 자발성과 사회중심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교화가 대립되지 않고 공존·융합되어야 한다.

아홉째, 교육운동의 주체와 방법에 있어 점진적 변화(현장 단위)와 전면적 변화(제도, 정책 등), 아래로부터의 접근과 위로부터의 접근(국가, 정책/제도), 국가와 지역교육청의 상호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실과 학교의 혁명은 아래로부터의 혁신적 노력과 교육청으로부터의 혁신적 지원이 맞물릴 때 성공할 수 있으며 그 때 학교혁신의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상호작용, 외적 개혁과 내적 개혁이 동시에 요청된다. 혁신은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학습과 봉사활동의 교량을 놓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만약 혁신학교 이념을 지향하는 행복학교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해하고 나아가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행복학교는 학교혁신의 역사에 있어 공교육 개혁의 중대한 전환을 가져다 준 학교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행복학교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

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I. 행복학교의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창의성, 존중과 배려,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육성을 위한 시대적·사회적 요구 확산
- 가르침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및 학교 혁신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과 확산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가꾸어 가는 경남교육 구현

II. 행복학교의 운영 철학

- 민주성 :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운영되는 교육
- 미래성 : 교육의 내용과 방법 모두를 혁신한 창의적인 교육
- 공공성 : 모든 학생들의 질 높은 배움이 있는 교육
- 지역성 :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교육

III. 2015학년도 행복(맞이)학교 운영 현황

구분	학교명(수)		지원(교당/만원)	비고
행복학교 (11교)	(초)용지초, 수곡초, 서포초, 김해봉황초, 화계초, 평산초, 동광초(7교) (중)충무여중, 봉명중, 하청중, 해성중(4교)		• 1년평균 4,000 • 교무행정원 1명	4년 지정
행복맞이학교 (70교)	학 교 형(20)	유(1), 초(13), 중(4), 고(2), 특(0)	• 1,000	1년 지정
	학 년 형(20)	유(0), 초(8), 중(11), 고(1), 특(0)	• 500	
	동아리형(30)	유(1), 초(11), 중(9), 고(8), 특(1)	• 200	

IV. 행복학교 추진 현황(2014. 9. 1. ~ 2015. 8. 31.)

- 행복학교 기본 계획(안) 수립 : 2014.9.2.(화)
- 행복학교 권역별 설명회 개최 : 2014.9.22.(월)~9.26.(금), 2,100여명 참석
 - ▶ 창원(9.22), 김해(9.24), 진주(9.26)
- 행복학교 기본 계획 확정 : 2014.10.14.(화)
- 도의회 교육위원회 설명회 및 협의회 : 2014.10.21.(화) 11:00, 전문위원실 등
- 홍보 리플렛 및 Q&A 자료 제작 및 배포 : 2014.10월
- 행복학교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한글자료 및 PPT자료 5종) : 2014.10월
- 2015. 행복학교 공모 설명회(4개 권역) : 2014.10.28.~10.31.(2,000여명)
 - ▶ 통영(10.28), 창원(10.29), 김해(10.30), 진주(10.31)
- 2015. 행복학교 공모 계획서 접수 : 2014.11.17.(월)
- 2015. 행복학교 공모 계획서 심사 및 현장 실사 : 2014.11.17.(월)~27.(목)
- 2015. 행복학교 11개교(초등학교 7, 중학교 4) 선정 발표 : 2014.12.4.(목)
- 2015. 행복맞이학교 및 행복학교 연구회 공모 계획 발표 : 2014.12.4.(목)
- 2015. 행복맞이학교 및 행복학교 연구회 심사 및 선정 발표 : 2014.12.26.(금)
 - ▶ 행복맞이학교 70개교 <학교형 20, 학년(군)형 20, 교원동아리형 30>
 - ▶ 행복학교 연구회 30개
- 2015. 행복학교 교직원 직무연수 : 2015.1.5(월)~1.8.(목), 3박4일, 128명
- 2015. 행복맞이학교 교원 직무연수 : 2015.1.19(월)~1.20.(화), 389명
- 2015. 행복학교 북유럽 교육연수 : 2015.1.17(토)~24(토), 20명
- 2015. 행복학교 연구회 교원 직무연수 : 2015.1.22.(목), 174명
- 2015. 행복학교 추진계획 수립 : 2015.2.25.(수)
- 2015. 행복학교 운영 : 2015.3.1.~
- 「행복학교 예산배정 실무위원회」위원 위촉 및 협의회 : 2015.3.5.(목)
- 행복학교 1학기 컨설팅단 구성·운영 : 2015.3월~8월(11명)
- 행복학교 홈페이지 구축 T/F팀, 홍보 T/F팀 구성·운영 : 2015.3월~
- 2015. 행복학교 컨설팅단 직무연수: 2015.3.14.~7.11. (30시간), 63명
 - ▶ 3.14.(토), 4.11.(토), 5.16.(토), 6.13.(토), 7.11.(토)
- 교육감과 함께하는 2015. 행복학교 교장단 간담회 : 2015.4.1.(수)

- 제1차 ‘행복학교 운영사례 보고회 및 배움중심수업 공개의 날’ 운영 : 2015.4.8.(수)
- 2016. 행복학교 공모 계획 알림 : 2015.4.9.(목)
- 제1회 행복학교 배움중심수업 토론회 : 2015.5.11.(월), 120여명, 본청 대강당
- 2015. 행복맞이학교(학년형)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 2015.5.18.(월)~6.3.(수)
- 교육감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교감단 간담회 : 2015.7.1.(수), 경남진산학생교육원
- 행복학교 및 행복맞이학교 1학기 연합컨설팅 : 2015.7.2. 110명, 연수원
- 행복학교 홍보 리플릿 자료 제작 및 배부 : 2015.7월
- 행복학교 이야기 나누기 및 2016. 행복학교 공모 설명회 : 2015.7.16.(목)~17.(금)
(유,초,중,고,특수 교감 및 업무담당자 2,000여명)
- 제1회 행복학교 포럼 : 2015.7.21. 230여명, 본청 대강당
- 배움의 공동체 전국 세미나 개최 : 2015.8.12.(2,000여명), 창신대학교
- 2015. 행복학교 컨설팅단 역량 강화 2차 워크숍 : 2015.8.13.(목)~8.14.(금), 52명
- 행복학교 2학기 컨설팅단 구성·운영 : 2015.8.25.(화)
- 행복학교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 T/F 협의회 : 2015.8.25.(화)
- 교육감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업무담당자 간담회 : 2015.8.27.(목)

V. 향후 추진 계획(2015.9.1.~2016.2.29.)

- 찾아가는 행복학교 및 행복맞이학교 맞춤형 컨설팅 추진 : 2015.9월~10월
- 행복학교 기획 시리즈 보도 및 홍보 : 2015.9월~12월
- 2015. 행정실장과 함께하는 행복학교·행복교육 연수 : 2015.10.15.~10.16.
- 2015.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행복학교·행복교육 연수 : 2015.10.29.~10.30.
- 행복학교 이해 자료제작 및 배부 : 2015.11월
- 2015. 행복학교 및 행복맞이학교 자체평가 : 2015.10.19.~10.30.
- 2015. 행복학교 축제 : 2015.11.13.~11.14.
- 2016. 행복학교 공모 계획서 접수 : 2015.11월
- 2016. 행복학교 선정 발표 : 2015.12월
- 2016. 행복맞이학교 공모계획서 접수 및 선정 : 2015.12월
- 2016. 행복학교 연구회 공모계획서 접수 및 선정 : 2015.12월
- 2016.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 연구회 연수 : 2016.1월~2월

VI. 2016학년도 행복(맞이)학교 운영 계획(안)

- 2016학년도 행복학교 운영 학교 수 : 21교
 - 2015학년도 : 11교 / 2016학년도(예정) : 10교
- 2016학년도 행복맞이학교 운영 학교 수(예정) : 100교 [2015학년도 70개]
- 2016학년도 행복학교연구회 운영 수(예정) : 30개 [2015학년도 30개]

VII. 추진 성과 및 정책 방향

- 행복학교 운영으로 새로운 경남 교육 실현
- 행복학교를 모델로 일반학교의 변화 도모
-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으로 공교육 개선
- 교육공동체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VIII. 행복학교 연차별 운영 계획





꿈, 감성, 이야기가 있는 수곡 행복교육

글 진주 수곡초등학교 교장 김우영

I. 함께 길을 묻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더 소중하다

본교가 행복학교를 운영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든 학교 교육비전과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은 이제껏 가보지 못했던 길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혼란도 있었지만, 집단적으로 사유하며 마음을 모아 몸을 움직이며 느끼는 희열은 무엇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와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행복학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학교일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학기초 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매일 던지며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는 인간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하여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 신뢰하는 문화가 형성될 때 각자가 가진 고유한 결정권을 존중하며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의 본질을 되살리는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II.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가 결정의 주체가 될 때 비로소 변화의 동력이 생긴다.

사람은 누구나 결정권이 있을 때 행복하고 자발성과 열정이 생긴다는 믿음 아래 학교장의 권한 중 많은 부분을 교직원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통제권을 학생자치기구인 다모임으로 일정부분 옮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교사들이 먼저 연구·실천하는 문화가 움트고 있고, 그 외의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배움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적극적이며,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다.

어떤 일의 성패를 빠르게 가늠하는 방법은 투입과 산출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계적이고 경제적인 매커니즘 속에서나 효율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와 경험 속에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도 학생들의 삶과의 밀착성에 근거하여 재구성 하였습니다. 결과보다는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요소 해결의 과정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학기 교육과정에서 실천한 몇 가지 사례와 활동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누리집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관계회복을 위한 교사 실천 약속	1) 학생과 동료 존중하기(경어쓰기, 약속 지키기) 2) 경청을 통해 공감하는 분위기 만들기(반론보다는 상대방의 의견 수용하기) 3) 친절하게 다가가기(스킨십, 함께 돌보기, 눈 마주보기)
학생들과 공감하는 따뜻한 교실 만들기	1) 아침에 모니터 끄기(업무 하지 않기) 2) 아침 공감 놀이활동 : 감각, 움직임, 감성을 깨우는 활동 3) 교실 중앙에 있는 교단 선진화 책상 옮기기 4) 칠판 상벌점 판 없애기
내 이야기가 있는 배움중심수업	1) 살아있는 책으로 공부하는 슬로리딩 수업 2)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봄 의식주 계절학교 3)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만나는 도전체험학습

내 성장 과정을 담아내는 평가

배움과 평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잘 배우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평가는 교육과정에서 그 아이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부모와 학생, 교사가 함께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학급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평가 통지 방식도 다양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학생 관찰 일지, 학생들의 글과 작품을 모아 한 학기의 성장과정을 담은 문집, 포트폴리오 등으로 각 가정에게 통지하였고,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호응을 얻었습니다.

III.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올해는 모범 사례의 벤치마킹이 아닌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학기도 1학기과 마찬가지로 새롭지만 본질에 충실한 시도들이 계속될 것이고, 내년 교육과정을 기획할 때가 되면 좀 더 성장한 교사와 학생들이 좀 더 질 높은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다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중착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병존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가 인간적인 삶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학교와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쌓여 삶 자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이 지속되고 보다 학교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목공부, 야외 벤치 제작



음식 만들기부, 요리실습



옷 만들기부, 잠옷 만들기



수렵채집부, 통발로 민물고기 잡기



뜨개질부, 수세미 만들기



동영상부, 영상 편집하기



경남교육! 이것이 궁금합니다.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자주 묻는 질문
- ▶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 ▶ 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자주 묻는 질문

방과후학교 운영 시 프로그램 편성 및 개설, 위탁강사 자격, 운영 시간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담임교사가 대입상담 및 진로지도 등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담임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대입상담 및 진로지도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강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프로그램 위탁강사 모집 시 학력 또는 연령제한을 할 수 있나요?

- 프로그램 위탁강사를 모집하면서 학력 또는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수의 능력있는 분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응모에 있어 학력 또는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금지합니다.

3.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 또는 상위 학년을 앞서 편성 운영할 수 있나요?

- 편성·운영하지 못합니다.
- 방학 중 한 학기 또는 상위 학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선행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으며, 해당 학년 교육과정의 보충·심화 내용으로만 가능합니다.

4.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시간 재량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 프로그램 개설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 형편과 강좌의 특성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규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268-1523]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의 방학중 근무 시 호봉 인정,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 수당 지급, 계약 기간, 출장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방학중 방과후과정 강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경우 호봉 인정 되는가요?

⇒ 자격을 갖추고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호봉인정이 가능합니다.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경력환산율표 기준 적용

- 근무기간 × 주당 실 근무시간/유치원 및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 주당 실 근무시간 : 계약으로 정한 주당 수업시간

예시) 주당 방학중 방과후과정 20시간 일 경우
 $5일 \times 20시간 / 40시간 = 2.5일$

- 주당 실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3할 인정

예시) 주당 방학중 방과후과정 20시간 일 경우
 $5일 \times 20시간 / 40시간 = 2.5일$

▶ 방학중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출근한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에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적용이 가능한가요?

⇒ 방과후과정 운영 조건(1일 4시간)으로 채용하였으므로 41조 연수 대상이 아닙니다.

▶ **시간제기간제교사가 방학중 방과후과정 오전(특별보충과정) 수업시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 방학중 방과후과정 오전 수업을 할 경우(방학중 강사로 채용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수업시간에 대한 시간당 1만원의 특별보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채용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 통상 학기단위 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방과후과정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채용하며, 동일 유치원에서 4년 기간이 경과된 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 가능합니다.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초등교육과 - 2296, 2015. 2. 5.) 공문 참조]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유아 현장 체험 학습 인솔시 출장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출장시간은 몇 시부터 해야하는가요? 또 초과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해야 하는가요?**

⇒ 복무는 원장 지시에 따르며, 현장체험 시 출장 가능 합니다. (출장비 지급)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체험 학습으로 출장을 간다면 교육과정 담당교사와 동일하게 출장 조치합니다.(출발부터 도착시간까지)

⇒ 초과근무 시간은 방과후과정 수업 전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근거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6호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
-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2296(2015.2.5.) 「2015학년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담당자 연락처 : 268-1152]

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 도에서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육·사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교육비리 및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을 통한 불법·비위행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호에서는 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청소년단체활동비 집행 부적정

「2013~2014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수익자부담경비는 현장학습비, 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II.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르면 ‘청소년단체활동비(각종 청소년 단체 활동을 위한 수익자부담금)’의 경우,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수익자부담수입)’과목으로, 세출예산은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과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는 청소년단체로 ○○○을 조직·운영하면서 ‘청소년단체 입단 선서식 참가비’ 등 총 7건을 별도의 수익자부담으로 징수하지 않고 학교기본운영비(단위사업: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사업: 동아리활동)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2. 공유재산 관리 소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4조(위임사무) 제2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무는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1조(사용·수익허가조건) 및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초등학교는 행정재산 학교용지를 ‘○○군 ○○면’에 무상 사용허가(대부목적: 사회생활 체육활성화 및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대부료: 무상, 신청인: ○○면장) 하고 있으면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을 명시한 사용수익허가부 없이 재무감사일까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허가 하고 있으며, 교장 ○○○은 위와 같이 업무담당자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물품 관리 소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7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청사·교사·관사·물품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는 농산어촌 ICT사업으로 구입한 노트북을 학교장 정년 퇴임식 행사에 필요한 동영상 제작한다는 이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관리관의 출급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에 의하면,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은 반납하고, 같은 법 제72조(불용의 결정 등)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불용의 결정을 하여 매각 처분하거나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각 또는 폐기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는 프린터를 물품관리대장에 16대로 운용부서에 출급 등재하였으나 이중 4대를 물품의 반납 및 불용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창고에 방치하였다. 또한 미술실의 컴퓨터는 과학실로, 프린터는 교무실로 이동하였으나 운용부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축의·부의 금품 등), 시·도 또는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 및 지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로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는 위 관련규정의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예술 가을전시회 격려금 지급’등 총 6건을 업무추진비에서 잘못 집행한 사실이 있다.

[담당자 연락처: 268-1077]

부서(기관)별 10월 주요 행사 안내

순	일시(시기)	행사명	장소	대상	참가인원	주요내용	주관부서 (기관)명	연락처
1	10.1.(목)~ 10.28.(수)	책으로 말걸기	김해도서관	어린이 및 지역 주민	1200명	• 이용자가 선정한 상황별 독서치유 • 전시도서관에 대한 질문에 답 글 붙이기	김해도서관	320-5563
2	10.2.(금) ~10.4.(일)	다문화축제 부스 및 북버스 운영	용지문화공원	지역주민	300명	• 축제기간 동안 다문화 관련 도서 및 다양한 활동 및 놀이 전시, 도서대여 등	창원도서관	278-2882
3	10.8.(금) 09:50	찾아가는 체험활동	사천 대방초등학교	사천지역 병설유치원아	60명	• 각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 유아들의 체험기회 확대를 위하여 여러가지 체험부스를 가지고 단위 유치원에 찾아가서 운영함	경상남도유아 체험교육원	760-7122
4	10.10.(토) 14:30~17:00	소통을 위한 인문학, 관계로서의 인문학	마산도서관 시청각실	지역주민	100명	• 김위의 인문학 작가 <최준영>님의 소통과 관계 로서의 인문학 특강 운영	마산도서관	240-4550
5	10.12.(월) 10.30.(금)	2015. 교과교육 개인연구 발표대회	경남교육연구 정보원	유·초·중등 교원	211명	• 2015. 교과교육 개인연구 발표대회 연구보고 서 심사 • 2015. 교과교육 개인연구 발표대회 발표심사	경남교육연구 정보원	269-0711
6	10.13.(화)	2015.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대회	경남교육연구 정보원	초·중등 교원	102명	• 학교 현장 진로교육 활성화 연구대회 • 2개(개인분과, 학교교육과정운영분과) 영역 • 계획서 개인 19편, 학교교육과정 10편 제출 • 도대회 입상자 전원 전국대회 출품	경남교육연구 정보원	269-0717
7	10.14.(수) ~ 10.15.(목)	제19회 경남과학썸잔치	함안체육관 (가야읍 함안대 로 619-1)	초등학생 및 일반인, 학부모	1,500명	• 초등학생의 교과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과학체 험활동 부스, 공작활동 부스, 과학전시 및 시연 활동 천체관측교육 등 모두 30여종의 과학체 험 및 탐구활동 운영	경남과학교육원	760-8123
8	10.15.(목) 10.16.(금)	행정실장과 함께 하는 행복학교· 행복교육 연수	창신대학교 경남교육연수원	전학교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6급 담당	1,100명	• 행복학교·행복교육 특강 • 초·중등 행복학교 운영 사례 발표 • 행복학교 운영 현황 안내 및 2016. 행복학교 공모 설명	학교혁신과	278-1762
9	10.16.(금)~ 10.22.(목)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강원도일원 (강릉시)	고등부대표 선발학교(팀)	519명	•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여 스포츠정신 고취하여 체위향상 및 학교체육의 저변확대	체육인성과	268-1382
10	10.17.(토)	이남석 초청특강	창원도서관 시청각실	지역주민	110명	• 대중가요로 알아보는 사랑의 인문학	창원도서관	278-2851
11	10.17.(토) 15:00	인형극 '뚜비메가파워'	마산도서관 시청각실	어린이	100명	• 아기공룡 뚜비를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배워 보는 인형극 공연	마산도서관	240-4570

순	일시(시기)	행사명	장소	대상	참가인원	주요내용	주관부서 (기관)명	연락처
12	10.20.(화) ~10.30.(금)	초등 두드림학교 하반기 컨설팅	삼가초, 칠원초, 주석초, 사진초, 고성초	초등두드림학교 교감 및 담당자, 지역청 장학사, 컨설턴트	200명	• 두드림학교 운영 성과 공유 • 두드림학교 운영지원 컨설팅 등	초등교육과	268-1115
13	10.22.(목)	수업명사 권역별 연수회(서부권)	쌍백초	초등 수업명사 및 희망 교원	100명	• 배움중심수업 확산을 위한 수업 나눔 •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정보 교류 등	초등교육과	268-1114
14	10.24.(토)	수업명사 권역별 연수회(동부권)	삼랑초	초등 수업명사 및 희망 교원	100명	• 배움중심수업 확산을 위한 수업 나눔 •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정보 교류 등	초등교육과	268-1114
15	10.24.(토) 10:00	토요가족 체험운영	경상남도유아 체험교육원	도내 만3~5세 유아 및 학부모	300명	• 바람공체험, 물체험, 동화방, 아트룸, 건축블록 체험 등 5개 체험실을 학부모와 함께 체험함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경상남도유아 체험교육원	760-7124
16	10.27.(화) 14:00~17:00	교육감과 함께하는 원탁대토론회 (3차)	김해시 아이스퀘어호텔	학교장	300명	• 슬로건 : 교육CEO, 지혜를 모으다 • 대상 : 전 유.초.중.고.특수학교장 • 의제 : 변화를 이끄는 관리자의 바람직한 리더십	정책기획관	278-1732
17	10.28.(수) 19:00	제14회 시와 음악이 흐르는 시낭송의 밤	마산도서관 시청각실	지역주민	70명	• 독서회원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시낭송회 개최	마산도서관	240-4560
18	10.29.(목) 10.30.(금)	교장선생님과 함께 하는 행복학교 · 행복교육 연수	창신대학교	전학교장, 교육전문직	1,100명	• 행복학교·행복교육 특강(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 초·중등 행복학교 운영 사례 발표 • 행복학교 운영 현황 안내 및 2016. 행복학교 공모 설명	학교혁신과	278-1762
19	10.30.(금) ~11.1.(일)	2015.경상남도 초·중학생종합 체육대회	김해시일원	초·중학생	7,000명	• 초·중학교를 시·군부로 분리하여 교육지원청 대항전으로 개최 •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남대표 1차 선 발전을 겸함	체육인성과	268-1383
20	10.30.(금) ~ 11.1.(일)	제5회 발명 한마당 큰잔치	경남체육고등 학교 강당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학부모	15,000명	• 도내 각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발명교육프로그램과 정보를 한 자리에서 상 호교류 할 수 있는 장 마련 • 발명에 관심있는 학생·학부모·교사에게 다양 한 발명체험의 기회 제공	경남과학교육원	760-8113
21	10.31.(토)	매직복소	창원도서관 시청각실	지역주민	110명	• 마술이나 그림자, 버블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 게는 색다른 동화 속 이야기를,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	창원도서관	278-2852

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수업

1. 나의 수업 철학은 무엇인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열정 있는 수업, 만족스러운 수업을 향해 22년을 달려왔다. 수업 관련 연수와 세미나도 열심히 다녔고, 수업연구대회도 여러 차례 나가 1,2등급을 받으며 학교를 옮길 때 마다 수업 톡 부러지게 하는 교사로 인정받는 것이 노력의 결실처럼 느껴졌다. 수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로 자부하며 매진해왔다. 그러던 중 2012년 10월, 나의 교직생활에 전환점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 협동학습 연수에서 배움의 공동체를 알게 되었고 온라인 연수 연수를 듣고 난 뒤 사토마나부 교수의 책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모임 활동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나의 여정은 새로운 지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배움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수업에서 교사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면서 수업에서 철학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수업 현장, 수업 상황, 아이들도 제 각기 다르므로 수업의 기술, 법칙, 교사의 교수법에 대한 답은 없지만 교사가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수업을 디자인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2.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 없이 질 높은 배움에 도전하게 하자.

무엇보다 나를 깨어나게 한 것은 배움 중심 수업의 세 가지 철학이었다. 첫째는 공공성으로 학교는 공공의 사명과 책임에 의해 조직된 장소이며 교사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문가로서 학생의 배움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이다. 둘째는 민주성이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민주 시민을 만드는 데 있고 여기서 민주성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탁월성이다. 탁월성은 타인과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것이 아닌 자신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탁월성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신중함과 겸허함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질 높은 배움을 위한 수업을 디자인 하려고 한다.

3.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배움은 존엄하다.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

6월 24일 7교시 1학년 국어시간, 단원은 ‘내용 요약하기와 조정하며 쓰기’이다. 총 7차시 중 6차시로 5차시 까지는 다양한 글로 내용 요약하기를 하였다. 국어교과의 본질을 살리면서 아이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텍스트를 무엇으로 가져올 지에 대한 고민으로 수업디자인을 시작하였다.

삶이 녹아있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텍스트를 찾던 중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꼴찌라는 기사를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업방법은 신문기사를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대상을 정해 편지글을 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토의와 토론을 통해 현재 자기 삶에 대해 성찰하고 글을 씀으로써 생 각의 표현 뿐 아니라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랐다.

학생은 자신의 생활을 쓴 시를 같이 읽고, 화자의 마음을 느껴보았다. 모둠별 신문 기사를 읽고 내용을 요약했다. 교사는 모둠에 방해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혼자 있는 아이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도움을 주고, 낮은 목소리로 질문하거나 문제를 해결한 모둠과 연결시켜 주었다. 그리고 공유한 기사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이 직접 나와 전자칠판에 줄을 그으며 중심문장을 찾아갔다. 잘못 찾은 중심문장은 왜 그런가에 대해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듣고 수정해가며 아이들이 결국 중심문장을 찾아냈다.

교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배움에 다시 소극적인 대상이 돼버린다. 믿고 기다려주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신문기사의 제목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난 뒤 두 번째 과제로 지금 자신을 가장 불행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생각해 써보도록 했다. 각자 네 장의 포스트 일에 생각을 적은 후 모둠 판에 붙여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도록 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고민을 이야기했고 친구의 고민도 알게 되어 ‘나도 그래’ 라며 서로 공감하고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공유했다.

현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으로 꼽힌 것은 시험과 성적, 이로 인한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문제였다. 원인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경쟁으로만 치닫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방향도 지적했다. 중학교 1학년의 생각들이 깊고 현실을 예리하게 보고 있어 놀랐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아이들답게 현재의 생활에 충실하자는 것과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공부밖에 없다고 했고 어른이 되면 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도 나왔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면 지금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말하고 싶은 대상을 정하고 편지를 써보게 했다. 모두가 숙연한 분위기에서 생각에 잠기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엄마에게’ ‘시험으로 힘들어 하는 나에게’ ‘미래의 나에게’ ‘친구 문제로 고민하는 나에게’ 등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동안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다음 차시에는 자신이 쓴 편지글을 발표하고 또 부모님께 쓴 친구들은 보여드린 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모님과 성적으로 갈등하던 아이는 편지를 보여드리고 엄마가 자신을 이해하게 되어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했다. 당차게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아이는 쓰는 것만으로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모두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다.

4. 배움의 즐거움 속에서 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수업을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발견할 때 의욕이 생기고 배움에 도전한다. 아이들은 배움에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 어쩌면 아이들은 배움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자생력을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교사가 목소리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면 교실은 변한다. 수업의 실패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삶을 얼마나 고민하면서 수업을 디자인 했는가 반성하며 아이들의 삶과 연결만 되면 살아있는 수업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좋은 수업을 만든다.

매일 게으름과 좌절과 싸우지만 교사의 노력이 쌓여 실천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 잘못 들어선 길이 지도가 된다는 말처럼 오늘도 희망을 품는다.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수업을 ……

디지털교과서 활용으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작지만 강한 학교

글 양산 어곡초등학교 교장 정복자

아름다운 산과 맑은 계곡이 흐르는 자연의 평화로움이 부드러운 햇살처럼 흐르는 곳!

명품 자연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곡 공단의 중앙부에 자리 잡은 탓에 매연과 갖가지 공해로 인해 교육에 험거움을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어곡초등학교이다. 열악한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배움과 나눔의 명품교육의 실천으로 활력과 배움의 열정이 넘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로 미래를 준비해요

“얘들아, 미래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에 “창의성이 있고, 컴퓨터를 잘 해야 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잘 해야 해요”의 응답이 이어진다.

어곡 교육은 바로 이런 아동들의 응답에서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리터러시로 역량 기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1. 내 스마트기기로 미래를 준비해요.

2013년 스마트교육 모델학교와 2015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아이들은 손에 개인용 스마트기기를 들고 수업에 참여한다. 저학년 아이들은 아직 자판을 누르는 것도 익숙하지 않지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며, “스마트기기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하며 자랑한다. 한편 중·고학년 교실에서는 “오늘 발표자료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볼까?”라며, 구글 문서도구를 활용해 협업한다.

2. 체득하는 정보 통신 윤리 교육

5월의 전교어린이 회의에서는 ‘스마트폰 프리선언’을 하였다. 바로 스마트폰 제대로 활용하기에 대한 선포식과 다짐식이다. 이 프리선언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아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학급별 회의와 전교어린이회 회의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실천다짐을 함께 만들었다. 이날 회의 이후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고 친구에게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10시 이후에는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실천다짐은 학교 방송을 통해 명쾌하게 선포되었다.

3. 디지털세대 건강을 위한 3.6.5 건강 프로젝트

매일 아침, 아이들은 즐겁게 무엇인가를 따라 한다. 바로 디지털교과서 활용 건강 체조이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서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건강이다. 이에 교사들은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적합한 건강 체조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신체 중 중요한 ‘3부분에 대한 6가지 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으로 배움을 만들어가요

본교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길러진 역량으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미래형 교육을 직접 체험하며 구현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주제중심교육과정으로 배움을 다지고 디지털배지로 평가받기

배움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실태에 맞는 ‘맞춤학습’을 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다. 이를 위해 학년별로 연 4회 주제중심통합단원을 구성하여 학생들과 함께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극대화시키고 차별화된 과정중심 평가를 위해 위두랑(에듀넷 커뮤니티) 활용 평가 방법을 고안하였다.

위두랑 활용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위두랑에 탑재하여 평가받는 방식으로, 교사가 학생들이 탑재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핵심역량을 의미하는 다양한 모양의 배지 이모티콘을 학습결과물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본교에서 실시하는 위두랑 평가 방법은 학교에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함양시켜주기에 매우 적절한 과정중심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전국의 학교에 파급되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꿈빛 지식 백과 만들기

‘학생들은 무엇으로 배움을 만들어 가는 것일까?’ 예전에 우리 아이들은 지식 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오기만 하였다. 하지만 ‘지식백과’를 스스로 만들면서부터 학생들의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업을 통해 정리한 배움을 지식백과에 올려 함께 나누기 위해 시작한 「꿈빛 지식 백과 만들기」는 위키백과처럼 학생들 스스로 지식을 만들고 공유하자는 데서 출발하였다. 학습활동에서 배운 내용을 탑재하면 다른 아이들이 그 내용을 보고 더 보충할 자료를 덧붙여 올린다.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는 백과사전! 아이들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백과사전!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진정한 배움이 완성되리라 생각된다.

3. 매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위한 수업 나눔의 날 운영

본교에서는 매월 수업 나눔의 날을 운영한다. 수업을 한 선생님의 수업 전 후의 고민들을 함께 듣고 서로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그 수업을 참관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포스트잇에 각각 적어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수업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씩 풀어 나가고 있다. 어떤 날은 퇴근 시간이 넘도록 둘러앉아 토의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강한 교사, 강한 학교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미래교실의 모습은 무엇일까?

교사와 학생이 배움을 만들어가는 작지만 강한 학교! 기술과 감성이 만나 탁월성과 인간미가 넘쳐나는 학교! 스마트 교육을 기반으로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통한 미래형 교육을 체험하며 그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내일의 학교! 오늘도 이런 꿈을 가슴에 안고 우리학교 전교직원과 아동들은 진정한 배움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협동학습으로 풀어가는 창의·인성 교사수업연구회

함께 풀어가는 “Edu-Dream” 교사수업연구회 소개

글 창원 산호초등학교 교사 김영진

본 연구회는 단일학교 선생님들로 조직되어 실제 수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토의·토론수업 모델을 연구·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수업전문성을 신장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신장시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미덕을 자연스럽게 체득시키고자 수업연구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1. 특성화 분야

① 토의·토론을 통한 창의·인성 수업 모델 개발

학년수준을 고려하여 5~6학년 교과별 토의·토론 적용이 가능한 차시를 추출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협동학습 수업 모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과별 토의·토론이 적용 가능한 차시를 통해 주제 및 수업기법, 창의인성 요소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학생들 수준에 맞는 토의·토론 적용 학습 과정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효과적인 창의·인성 수업을 위한 지도안 작성 방안 모색

수업 모델 개발 적용 및 효과적인 창의·인성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적용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수업공개에 적용된 지도안은 세안 형태나 본시 지도안

형태로 작성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수시로 실시되는 창의·인성 수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업 내용을 간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지도안 양식을 개발하여 형식보다는 토의·토론, 창의·인성수업의 실제 적용에 중점을 두어 지도안을 제작하였다.

③ 교육실습학교 운영을 통한 토의·토론 수업의 저변 확대

본 연구회 관련 연구 결과를 교육실습생들과 공유하여 창의·인성 수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업 적용 기법에 관한 의사소통 기회를 마련하였다. 교육 실습생들의 수업 및 지도안 작성 협의를 통해 다양한 학습 적용 방법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특히 수업 공개 시 참관 및 강평회로 교육실습 내실화에 기여하였다.

2. 활동의 실제

새미학습 운영	>> ‘Edu-Dream’ 새미학습 운영을 통한 자료 공유 - 연구위원 개인 연구 자료 탑재 및 공유 - 창의·인성을 바탕으로 한 토의·토론 수업 지도안 탑재 및 공유	
연구위원 협의회 실시	>> 연구위원 협의회 실시 - 월 1~2회이상 연구위원 협의회를 통해 개인연구에서 획득한 정보 공유 - 토의·토론 수업과 관련된 자신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수업 시 사전·사후 협의회를 통한 반성 및 피드백 - 개인 연구 과제에 대한 소개	
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 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 교과별 토의·토론 적용이 가능한 차시를 추출하여 토론주제 및 수업기법, 창의인성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 - 모델의 일반화를 위해 수업공개 후 협의회 실시 및 교사와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정·보완 - 본교 교사 및 교육실습생의 수업공개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 과정 안내 및 다양한 토의·토론 기법 안내	

3. “Edu-Dream” 연구회 과제 및 성과

현재까지 작성된 지도안은 차시 목표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향후 제작할 지도안은 2009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성취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이다. 또한, 창의·인성관련 수업 기법에 다소 치중한 나머지 평가 부분을 형식적으로 진술한 것에 대해 컨설팅에서도 제한점이 논의가 된 바 있다. 향후 평가 부분에 대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반영해야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연구회 성과로는 주제와 교수·학습 상황,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토의·토론수업 방법 적용을 통해 교사의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수업전문성을 신장시켰으며, 개발된 수업 모델의 현장 적용과 자발적 컨설팅 및 수업 분석을 통해 수업의 질이 향상되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학생들은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 신장 및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 이해하며 협동하는 미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함으로써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창의력으로 꿈을 키우는 아이들

웅남초등학교 김인철선생님을 만나다.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창원 웅남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인철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발명 활동으로 14년 동안 꿈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발명이라는 분야에서 활동하다 보니 경남교육청 발명교육지원단, 경남과학교육원 교육지도교사, 발명영재교육원 강사,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강사, 한국발명진흥회 자문위원 등 관련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과 연계를 통해 창의성 교육의 방법과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선생님은 전국 최초 2015.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사인증제에서 마스터 인증 자격을 받은 5명의 교사중의 한 명이신데 발명교사인증제란 무엇인가요?

A.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사 인증제는 발명교육의 시대적 필요성 및 수요의 확대에 따른 담당 교사의 양적 증가와 함께 발명교육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된 발명교원용 인증시스템입니다. 응시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유아교육법』 제 22조에 의거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예정자 또는 예비교사, 현직교사, 기간제교사, 퇴직교원, 장학사(관), 교감(장), 예비교사(2급 인증 자격기준 통과한 후, 2급 정교사 자격부여)입니다. 인증제는 2급, 1급, 마스터로 역량을 설정하

고 평가절차를 통해 부여하고 있습니다. 2급은 동아리 등 일반학교에서 발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 1급은 발명교실 및 영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 마스터는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사로서 학생, 교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도하며, 연구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입니다. 마스터는 올해 처음으로 선발했고 총 5명의 선생님께서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경남에는 저와 진주에 근무하시는 이영민 선생님이 해당되십니다.

Q. 선생님은 발명교육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고 어떤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셨는지요?

A. 저는 첫 발명을 발명시범학교에 받아서 발명전담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비록 8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준 밑거름이 되어준 시기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발명은 결코 과학자나 특정인들이 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주변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태도와 능력을 길러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회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부터 경남창의력올림픽, 경남창의력페스티벌, 대한민국창의력챔피언대회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발명 수업에서 어려운 점과 효과적인 수업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A. 발명교육이 정규 교과가 아니다보니 동아리, 영재 학생들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재구성해서 해야 합니다. 처음 교육을 시작하는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지로 재구성하기 보다는 수업에서 제시된 발명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사고 기법 등 다양한 기법 등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가깝게 발명에 대해 느끼기 위해서 발명대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게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2009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등 각종 상을 많이 받았고 경남과학교육원 파견근무 및 해외 연수 경험 등 발명교육을 통해 많은 발전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발명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발명대회나 기법에 대한 자료는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와 연계한 교육은 아직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쉽게 생각하고 접할 만큼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발명을 통해 큰 꿈을 이루는 모습을 꿈꿔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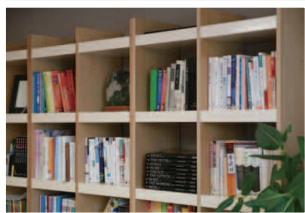


교사 배초록의 서재는 삶을 바꾸는 숲이다.

저는 책 읽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재미있게 읽다가 ‘음... 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책 속에서 느끼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공감과 깨우침이 저를 토닥이고 생기 있게 합니다.

아이들이 시험과 학원에 치여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한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교과연계 독서지도를 통해 학교에서 책을 읽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선생님의 어린 시절 및 독서와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해주세요.

어린 시절, 집에는 책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책을 좋아하셔서 많이 사주셨습니다. 교사였던 아버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 주셨는데, 부모님의 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래동화, 세계동화, 위인전, 소설 등 닥치는 대로 읽었고, 친구 집에 가서도 집에 무슨 책이 있는지부터 살피곤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게 되었는데 끝까지 읽고 난 후 저는 알 수 없는 우울감과 함께 훌쩍 자라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나를 성장시키는 책읽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2. 선생님의 서재를 소개해 주세요.

저의 서재 중앙에는 『톨스토이 단편선』이 꽂혀 있습니다. 그 옆으로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밀란 쿤데라의 『농담』이 있습니다. 펄벅의 『대지』와 트리나 포올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장자크 쌍뽀의 『얼굴 빨개지는 아이』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제게 힘이 되어주는 이해인 수녀의 시집과 정채봉, 정호승의 시집과 산문집,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와 창비 시집 『걸었던 자리마다 별이 빛나네』도 있습니다. 신영복의 『더불어 숲』, 이오덕의 글쓰기 책과 일기, 그리고 슈바이처의 『나의 생애와 사상』은 제가 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노회경, 김영하, 김형경 작가의 소설, 로자문드 필처의 『조개 줍는 아이들』,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알랭 드 보통의 소설은 제게 삶의 여유를 주는 책들입니다.

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양서, 혹은 좋은 독서법을 소개해 주신다면?

글을 읽으면서 세상에 의문을 품고 다른 것을 경험 할 수 있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여러 곳에 두고 짬짬이 읽습니다. 귀한 시간을 스마트폰을 문지르면서 보내는 것보다 책 한 줄이라도 읽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4. 학생들 혹은 동료 교사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인가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 책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성찰을 줍니다. 다음으로 이오덕 선생님의 『이오덕 일기』를 소개합니다. 선생님의 일기는 하나하나가 뭉클해서 눈물이 나고, 교사로서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폰 쇠부르크의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두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이 책에서는 가난에 대한 유쾌한 시선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5. 선생님이 읽으신 책과 관련해서 혹시 교과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요?

제가 읽는 모든 책은 교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를 토대로 학생들의 삶을 성찰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림책을 활용하여 문학적 감수성을 일깨워 보기도 합니다. 소설에 나온 놀이를 실제로 해 보기도 하고, 토론 주제를 잡고 책 내용을 근거로 독서토론하기, 자신의 꿈과 관련된 도서를 선정하고 깊이 있는 읽기 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독서진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교사의 서재 BOOK in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 열린책들 / 2014.07.20.

톨스토이는 작품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게 진정한 삶인지, 행복한 삶의 실천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인류가 어느 상황에서건 보편적으로 잃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쉽고 잘 읽혀서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오덕 일기

이오덕 / 양철북 / 2013.06.24.

산골 학교에서 지낸 42년의 기록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순수하고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어린이 이들을 교육하면서 느꼈던 감동과, 이 땅의 지식인으로서 고민하고 실천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특히 가르치는 데 있어서 기술보다는 마음을 먼저 앞세우는 모습과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폰 쇠부르크씨의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알렉산더 폰 쇠부르크 / 필로소픽 / 2013.06.07.

잘나가던 직장에서 해고당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방법을 소개한 글입니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집, 자동차, 여행에 대한 철학을 유쾌하게 제시하여 가난이 결코 비참하지 않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집중적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삶의 즐거움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문화 공감

글 남해 삼동초등학교 교사 박소연

학교 밖으로 나서는 아이들의 발걸음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다. 화창한 햇살이 땅을 보듬는 계절, 전교생이 보금자리를 잠시 떠나 도시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진주로 향했다. 도농간의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도시문화체험학습은 ‘독서와 함께하는 문화 공감, 책방 나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느 해보다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평소 독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삼동초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도시 체험 학습은 학교 독서 위원회의 긍정적 반응과 참여에 힘입어 작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다. 첫 번째 문화 공감은 ‘다이노 타임’이라는 국내 기술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관람으로 시작되었다. 다채로운 영상효과, 성우들의 재미있는 목소리 연기에 관람하는 학생들이 함께 웃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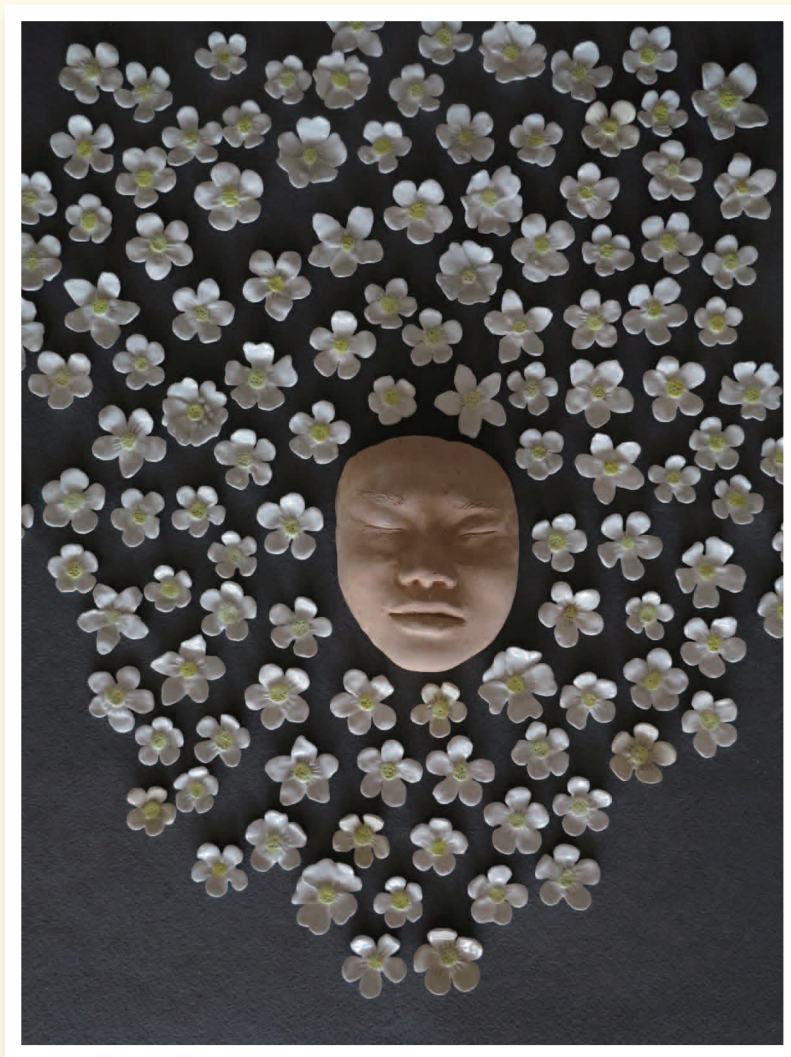


영화에서 느낀 여운을 뒤로 하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진주문고였다. 가까운 서점을 가려면 삼천포나 남해읍으로 나가야 하는 삼동초 학생들에게 책방 나들이는 중요한 활동이었다. 학생들이 문을 열고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에서도 부푼 기대감이 느껴졌다. 아이들은 어느새 뿔뿔이 흩어졌다. 체험학습을 가기 전 사전활동으로 이루어진 ‘내가 읽을 책, 내 손으로 고르기’ 시간을 통해 선정한 책을 직접 살펴보았다. 호기심 어린 눈망울이 곳곳에서 밝게 빛나보였다. 앞서서 본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한반도의 공룡에 대한 책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바닥에 앉아서 존경하는 인물의 자서전을 찬찬히 살펴보는 학생도 있었다. 책을 통해 스스로 배움을 이어가는 모습이 곳곳에서 화창한 햇살아래 싱그러운 꽃처럼 피어났다.



마지막 체험은 진주의 역사적 정취와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진주성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성 내에 자리한 국립 진주 박물관에 들어가 진주대첩에 대한 유물과 옛 진주의 모습을 관찰하며 역사적 배움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3D상영관에서 재현된 진주대첩의 영상을 관람하며 전란 속 옛 조상들의 용기와 지혜를 가슴 속에 담기도 했다.

이번 진주로의 도시체험학습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자발적 독서활동을 해왔던 아이들에게 도시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색다른 배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아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학교의 노력이 계속되길 희망해본다.



작품사이즈 70cmx70cm

제목 >> 사라질 것들

젊었을 땐 모든 것들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니, 인생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꿈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내 인생이 꽃 같이 화려하다고 이 꽃이 영원하지는 않겠죠, 이 꽃 역시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겠지요.

그래서 사라질 것들엔 미련을 갖지 말면 좋겠습니다. 꽃이 그렇듯 시간이라는 것도 그러하니까요.

강경근 / 현) 합천 야로중학교 교사

-
- 개인전 4회. 2004~2012. 한국교원대 외 3곳
 - 단체전 2014-교원공예가회(서울), 민족미술인전(거창), 위안부 기림일전(창원), 현대도예가전(이천), 경상대학교 교수작품전(진주)
 - 2015 - 현대도예가전(목포), 광복 70주년 역사의 거울전(서울)

